

빈곤·부패·전쟁 퇴치 불교 지성들의 위대한 도전

‘아시아의 참여불교’

크리스토퍼 쿤 · 샬리 킴 편저 / 박경준 역
초록마을 / 1만8천원

‘참여불교’라는 명칭은 세계적인 불교지도자 틱낫한 스님이 베트남에서 프랑스에 의한 식민통치와 미국과의 전쟁을 반대하며 투쟁했던 사람들의 행동을 일컬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이후 ‘참여불교’란 개념은 1978년 미국에서 설립된 ‘불교도평화주의회’와 1989년 조직된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에 의해 널리 쓰이게 됐는데, 보통 불교적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불교의 사회적 행동주의를 일컫고 있다.

현재 ‘참여불교’는 빈곤, 사회 부패, 계급적 갈등과 억압, 독재, 전쟁 등의 고통을 경험한 국가 불교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를 재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했다.

〈아시아의 참여불교〉에는 자신에게 닮은 시련과 고통을 극복해 인류에게 승화시킨 세계적인 참여불교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틱낫한 스님, 그리고 인도 불교개혁의 아버지 암베드카르 박사 등의 삶과 사상이 소개돼 있다. 또한 사회운동가로서 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태국 시민사회운동의 대부 술락 사바락사와 태국 지성계에 영향을 끼친 붓다다사 스님,

특히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암베드카르 박사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인도 최하층 계급인 불가촉천민 출신의 암베드카르 박사는 독립 직후 수립된 네루 정부하에서 최초로 법무장관이 되어 인도헌법을 기초했으며, 수백만 불가촉천민의 삶을 변화시킨 인물이다.

그는 불가촉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 시절 교실에서 선생님이에게 직접 공책을 건넬 수 없었고, 맨 뒷자리에 자리를 펴놓고 앉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런 그의 경험은 훗날 카스트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이 됐고, 더 나아가 카스트 제도를 지양하는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로 공개적인 개종을 선언하게 했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여러기구와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단체들도 소개돼 있다. 또한 틱낫한 스님이 설립했던 베트남통일회의 소속으로 전쟁의 참혹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틱광독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소신공양, 그리고 불단을 거리에 쌓아두거나 머리를 깎아 스스로 승려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전쟁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불자임을 느끼게 하여 살생을 막으려 했던 그들의 숭고하고 감동적인 일화들이 생생히 적혀 있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여러기구와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단체들도 소개돼 있다. 또한 틱낫한 스님이 설립했던 베트남통일회의 소속으로 전쟁의 참혹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틱광독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소신공양, 그리고 불단을 거리에 쌓아두거나 머리를 깎아 스스로 승려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전쟁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불자임을 느끼게 하여 살생을 막으려 했던 그들의 숭고하고 감동적인 일화들이 생생히 적혀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평화·비폭력·정치참여에 대한 철학 담겨

틱광독 스님 소신공양 등 감동적 일화도

점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불교의 핵심사상인 공(空), 연기, 중도를 토대로 한 개인의 깨달음과 사회적 실천에 대한 재해석, 차별과 평등에 대한 입장, 평화와 비폭력의 실천, 불교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 사회에 대한 비전 등 불교의 사회적 행동주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철학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신-물질 대충돌... 제4의 물결”

‘생태계 파괴, 빈부격차, 사회병리현상, 국제 평화의 위협 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는 행복방정식을 잘못 알고 있는 결과다. 다시 말해 자기 중심적이며 지나친 욕망과 물질적인 것에 집착함으로써 정신과 물질의 조화와 균형이 깨진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최근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정책최고과정에서 ‘정신혁명과 지혜경쟁’을 주제로 최우수는문상을 수상한 손기원(경영컨설턴트)씨가 펴낸 <정신혁명, 행복방정식이 바뀐다>에서 손씨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중도를 실천하는 행복방정식을 실천할 때만이 지혜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손씨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정신과 물질의 대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눔과 상생의 원칙, 도덕성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 지식인으로서 지혜인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정신혁명이란 바로 선각자와 과학자들이 알려 준 ‘모두가 하나(우주도 생명체도 하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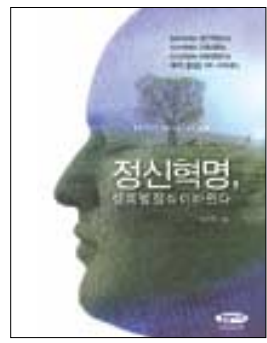
는 깨달음의 지혜를 소우주 안에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정신혁명을 위해서는 사고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한데 이는 ‘문제인식’ ‘문제의 원인 인식’ ‘해결방안’ ‘규범 설정 및 생활혁신’ 등 4단계를 체계적으로 거치는 것이 지속돼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사고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는 ‘비웃음을 살지도 모른다 는 두려움을 무릅쓰라’ ‘내면의 투철한 정신과 의지를 관찰하라’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라’ 등 10가지의 접근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현재 우리는 ‘제 3의 물결시대’를 거쳐 2010년경에는 정신혁명을 내용으로 하는 ‘제 4의 물결’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며 “발전지는 바로 정신과 명상을 중요시하는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나눔·상생·도덕성의 원칙 고수 강조



‘정신혁명’

손기원 저음
경영베스트 / 1만원



‘김시습 평전’

심경호 저음
돌베개 / 2만8천원

유·불·선 넘나든 한 사상가의 일대기

이 책 첫 장에 김시습이 그린 선비 모습의 자화상이 실렸고, 그 뒷장에는 스님 모습과 신선 모습의 초상이 실려 있다. 그의 초상이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후대 사람들이 자신의 해석에 따라 그의 모습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의 사상 편력이 유·불·선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의 옷차림을 바꿔 입힐 수 있었던 것이다.

어디 옷 뿐이었을까. 조정에서는 그의 유가적인 충절을 부각시키려고 그의 전기를 짓게 하였으며, 몇백년 전에 죽은 그에게 이조판서라는 벼슬과 칭간(淸簡)이라는 시호도 내렸다. <해동전도록>에서는 여말선초의 도맥을 후대에 이어주는 중시조로까지 표현하였다. 그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시를 지었던 문인이었으며, 성리학과 정통 유가 사관의 주제를 저술로 남긴 참여 지향의 선동가였다.

불교의 사유를 유교의 이상과 연결시키려고 고심했던 철학자였으며, 몸과 생명을 중시하여 수련 도교를 실천한 혁신적인 사상가였다. 백성들의 고통된 삶을 동정한 인도주의자였으며, 국토 산하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든 역사를 발견했던 여행가이기도 했다. 김시습은 자신의 무명담 비문을 ‘꿈을 꾸다 죽은 늙은이’라고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저자는 이러한 모습들을 한데 아울러 김시습 영혼의 일대기를 서술하였다.

1493년 조선 성종 24년에 김시습은 죽었다. 조선 초 수양대군(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발했던 생육신의 한 사람, 세종의 청전을 받았던 다섯살 신동 출신의 조숙한 천재, 승려이자 유학자로 광기를 내뿜었던 기인. 이 책의 미덕은 <매월당집> <금오신화> <유관동록> 등 김시습의 시문집과 여행기, 그리고 그가 교유했던 인물들의 저술·문집 등 수많은 문헌들에 새겨진 기록들의 진위 확인 등 실증적 연구를 통해 김시습이라는 인물이 몇몇 위진 ‘설화’들을 상당 부분 끌어낸다는 점에 있다.

저자는 김시습의 ‘광기’에 대한 일화들에서도 그의 삶을 ‘괴상한 것이나 해단’ 것으로 폄하하려는 제도권 의식이 개입된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은이가 보기에, 김시습은 당시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그 자신도 이를 깨닫고, 남들이 자기를

미치광이라고 비웃으면 “그래, 나 미치광이다” 하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세속을 조롱하였던 것이다. 천재 김시습은 세 살 때 외할아버지에게서 한시를 배웠는데, 세종 임금에게 불러가 그 솜씨를 보이고 ‘오세’라는 호까지 얻었다. 그러나 그는 곧 한시의 구속을 벗어났다. 허균은 그의 시가 “맑고 호매하여 세속을 초탈하였다. 타고난 재주가 뛰어나서 다듬고 꾸미는데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평했는데, 그가 형식을 벗어난 것은 자기 검열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노래를 이루지 못한 독백과 오열도 많은데, 이것이 독자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기도 하다. 평전 곳곳에 그의 시가 실려, 그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준다. 선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율곡에게 김시습의 전기를 짓게 하자, 율곡은 그의 생애를 ‘심유적불(心儒跡佛)’이라는 네 글자로 표현했다. 마음은 유가인데 자취는 불가라는 뜻이니, 당시 형편 때문에 스님의 옷을 입고 행동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때 출가했던 율곡 자신에 대

한 변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중 불교 조동종을 정리한 <종편조동종오위>를 거쳐 <심현담요해> 저술에 이르는 과정이 단순한 자취만은 아니다. 저자는 이 자취를 추적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독서를 했으며, 700쪽이 넘는 평전에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김시습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시습의 생애에 있어서 두어 가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을 받아들이지 못해 체제에서 쫓겨나갔지만 그의 불경 언해사업에 예찬하였으며, 세조가 친히 도침(승려 자취)을 찍어 주자 ‘오일금 때 같은 태평시절에 왕도정치를 펼쳤다’고 찬양하였다. 한때 환속하고 결혼했던 시절의 행적도 불투명하다.

저자는 김시습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평전이라면 모순되는 행적의 평가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독자들은 모처럼 김시습을 제대로 이해한 평전을 읽게 되었다. 율곡이 지은 <김시습전>보다 백배나 뛰어난 분량은 우리에게 즐거움이자, 또 하나의 도전이기도 하다.

■장기숙 / 강원대 겸임교수

<김시습 평전>은 오만하지만 솔직하고, 자신만만했지만 때론 열등감에 사로 잡했으며, 쾌활하지만 때론 격한 우울을 토로하기도 했던 인간 김시습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자미두수 전서(紫微斗數 全書)



천하제일의 신수(神數)! 자미두수!
천년만에 공개되는
『자미두수』의 핵심비밀
그 유일무이한 교과서!

자미두수라는 고전을 자신만이 알고 담은 경험적 진실로 새롭게 재해석

김성기(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책을 일독(一讀)에 보면, 자미두수의 그 경이로운 적중률과 구체적 논리성에 대해 이해가 될 것
韓國紫微斗數學會長 碧謙 張正林

중주국인 中國의 어느 해설서라도 능히 제압하는 역작이니 中國 사계의 福壽이다. 易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널리 권장하여 마지않는 바다.
에스콧컴 대표 李修



자미두수전서

13년 동안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간과 홍공의 어떤 해설서도 따라오지 못하는 치밀한 해설과 역자주! 장장 7년의 세월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탄생한 이 책은 자미두수를 연구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스승이 될 것이다.

공자 뱀자 손자 등 고대인은 물론 의사 장군 등 현대인까지 무려 121명을 예로 들어 풀이하였고, 특별부록 자미두수 CD를 활용하여 생년월일시를 입력하고 연습한다면, 누구나 3개월 안에 자미두수로 본 인생을 논할 수 있다.

※ 4x6배판 1,700쪽. 상하 2권, 100,000원(명반 CD포함)
저자: 이두 김선호.

주역인해(周易印解)



주역 원문에 있는 음과 현트를 표기하고, 점지의 의근에 따라 간단한 해석을 덧붙여, 휴대하기 간편하게 만들어 주역원문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한 책. 비닐커버

※ 신국판, 347쪽, 17000원, 2003년 10월 수정.

전법륜(轉法輪) 법륜공(法輪功)

http://falundafa.or.kr



중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누린 파룬궁, 기공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의식이 될만한 여러 사항(개광, 주화입마, 천목, 불가공과 불교, 남녀쌍수, 성명쌍수, 축유과, 연공초마, 자심생마, 업력과 전화, 살생, 육식, 부채, 속명동, 요시공능, 청정심 등)을 대화식 직설화법으로 아홉 번에 걸쳐 명쾌하게 강의한 『전법륜』.

그리고 그 수련하는 방법을 도면과 함께 설명한 『법륜공』이 출간되었습니다.

※ 전법륜 이용지 저, 503쪽, 신국판, 비닐커버, 15000원.
※ 법륜공 이용지 저, 243쪽, 신국판, 15000원.

대유학당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묘산 현음결 미주점 등이 곧 출간됩니다. 대유학도 10월호가 발간 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258 서신빌딩 403호
(전철 7호선 회기역 2번 출구)



대유학당
2249-5630
www.daeyou.net